

동해해수청, '25년 상반기 해양안전교육 및 선박안전설비 시연회 개최

동해지방해양수산청(청장 김채균)은 5월 21일 동해항에서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양안전교육 및 선박안전설비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안전설비 시연회는 선원, 선사직원 등 해양종사자들이 선박에서 비상상황시 사용하게 되는 휴대용 소화기, 구명조끼, 신호홍염, 발연부신폭 등 조난신호를 직접 사용해 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.

또한, 선박 퇴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사용하게 되는 구명뗏목 투하 시연을 선내 화재상황을 가정한 소화·퇴선훈련과 연계하여 선보일 예정이다.

아울러, 선박 충돌·추락·화재사고 조치, 밀폐구역 질식사고 예방체험 등 가상현실 장비(VR)를 활용한 사고상황별 체험교육과 동해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등 해양안전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.

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“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양종사자 대상 선박안전설비 시연과 해양안전교육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과 인명사고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.” 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	책임자	과 장	정철락 (033-520-6141)
		담당자	주무관	고규성 (033-520-6147)

참고

관련 사진



구명뗏목 팽창시연



조난신호탄 작동